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사람과 현장] 김미금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 가족이 현장에 보낸 편지

사람이 그래요
하루에도 맘이 이랬다저랬다 그래요

‘일이 좋다가도 일이 싫다가도 변덕이 죽 끓듯이 하는 것’ 이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금요일 날 저녁 공장 안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 했어요.

천장을 뚫어 버릴 것 같은 비 소리는 타다다타다다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불안이, 믿음이, 연민이, 애달픔이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울컥 올라왔어요

미숙 언니 옆에서 누워 있던, 4단지 산다는 언니는 미숙 언니를 보면서, “언니 우리 괜찮을까?”, “회사는 우리가 공장에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잖아. 나가라고 하면 어찌지?”

미숙 언니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되겠지, 분회장 믿고 하다 보면 이기겠지.”, “하나하나 다 치면 방법을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나 차 태워줘서 고마워”, “너랑 나랑 우리 진도 형부가 보내준 키위 나눠서 먹자.”

1월 1일로 기계가 멈춰버린 공장 안 바닥 여기저기에 전날일 동지가 차려준 이부자리는 다행히도 따뜻했습니다.

그 이부자리는 차가운 공장 바닥에 박스를 깔고, 그 위에 지역 연대동지들이 보내준 전기담요를 살포시 포개고 또 위에 적십자용 담요를 포개고, 그 위에 높인 침낭 안에 들어가니 엄마의 포근한 품 같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잠을 청하는 언니들은 여기저기서 조잘조잘, 킥킥득, 토닥토닥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감싸줍니다.

사람이 그래요

한없이 약한 것이 사람이지만 정말 강한 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의 자존을 지키는 일 앞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 을 느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나의 힘과 에너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믿는 순간,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감정으로 우리는 더욱 더 강해집니다.

인생에 있어 온 힘을 다해 나의 자존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 좋은 경험이 될지 모르지만, 우린 그 경험에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위대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일터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인생에서 큰 상실감이라는 것을 조금은 경험해 보았고, 다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제 마음 한편에 나 스스로 작은 훈장 하나를 달아줬습니다.

그 훈장은 지금도 나의 자존을 지켜내는 든든한 보석입니다.

동지들도 이 투쟁의 과정에서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투쟁이 승리로 끝나는 날,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훈장 하나 달아줄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2023년 1월 9일,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야무진 금순이 김미금 ^^* .